

연구논문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유형과 공동체의식 및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김영서** · 홍세희***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잠재프로파일별 주관적 행복감 및 공동체의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분석에는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 조사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연구’ 2019년도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총 2,798명의 고등학생이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활동 참여의 잠재프로파일 수는 4개로 나타났으며, 네 집단을 동아리 중심형, 종교 중심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잠재프로파일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성별, 학년, 학교생활 성실도, 친구관계, 아버지 직업 유무, 가정경제형편, 지역규모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이 남성일 때 동아리 중심형보다 종교 중심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에, 종교 중심형보다는 참여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학년일수록 활동 균형형과 참여 소극형보다는 동아리 중심형에 소속될 승인이 높아졌다. 또한, 학교생활을 불성실하게 할수록 동아리 중심형보다는 활동 균형형이나 참여 소극형에, 그리고 종교 중심형이나 활동 균형형보다는 참여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친구관계가 양호하지 않은 학생은 동아리 중심형보다는 종교 중심형, 활동 균형형, 또는 참여 소극형에 속할 승인이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이 있을 때 종교 중심형보다는 활동 균형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어머니 직업 유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형편 수준이 낮을수록 동아리 중심형과 활동 균형형보다는 종교 중심형이나 참여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역규모는 클수록 동아리 중심형에 비해 활동 균형형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을 살펴본 결과, 종교 중심형, 동아리 중심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 순으로 높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가장 열악한 집단인 고등학생에 주목하여 청소년활동 참여도와 이에 대한 영향요인 및 정서적·사회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의 평균적인 참여도 분석에서 나아가 개인차를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주제어: 청소년활동, 공동체의식, 행복, 잠재프로파일분석

* 본 논문은 주저자가 2020년 제6회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한국조사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통계 석사과정(youngsir@korea.ac.kr), 제1저자.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scheehong@korea.ac.kr), 교신저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어린 시절에 겪었던 좋은 경험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해서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Vaillant 2012). 특히 청소년기의 활동 경험은 성인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기르고 이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돕는 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시기에 직면하는 발달과업 수행과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적 행위로 볼 수 있으며(최창욱 외 2015), 오늘날 학업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1년에 도입되어 2013년 이래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2016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어 전국의 중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청소년활동이 학교 위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에서도 체험활동과 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의 기회가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임희진 외 2014).

청소년활동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지적 능력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이론교육에서 더 나아가 실천을 통해 개인적·사회적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김현철 외 2010).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은 학생 개개인이 자신에게 내재된 장점들을 발견함으로써 긍정적인 자기인식과 자아존중감을 가지도록 돕고(김윤나·박옥식 2009),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실제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킨다(고관우·남진열 2011; Kang et al. 2010). 또한, 사회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청소년에게 청소년활동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그 구조와 운영원리를 이해하게 하며(박재숙 2011; 한은영·김미강 2013), 건강한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지윤·김유나 2016).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밝혀짐에 따라 학교는 청소년의 교내·외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장려해왔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입시를 앞둔 상황에서 청소년활동에의 참여가 줄어들 위험이 존재한다. 청소년활동의 참여율은 초·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때 가장

낮았다(최창욱 외 2016).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업 부담과 여가시간 부족으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청소년활동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박진영 2007). 하지만 고등학생의 시기는 성인에게 필요한 생애 핵심역량을 기르는 시기라는 점에서 ‘행함으로써 배우는 학습(learning by doing)’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공동체의식이 증가하고(김선숙·안재진 2012; 한은영·김미강 2013),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 전반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밝혀진 바 있다(이시연 2019). 한편, 이러한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는 여러 청소년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봉사활동과 같은 특정 유형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김선숙·안재진 2012; 한은영·김미강 2013).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참여양상과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었다(김혜진 2014).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청소년활동 참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그 참여양상이 어떤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지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법론적 측면을 살펴볼 때 기존의 연구에서는 평균적인 참여도를 파악하였고 기술통계와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ANOVA분석 등을 사용하였다(고관우·남진열 2011; 구지윤·김유나 2016; 신인순·전동일 2017). 이러한 분석방법은 변수 중심적(variable-oriented) 접근으로서 변수 간 관계에 주목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대상을 하나의 동질적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으로 전제한다(Wang & Wang 2012). 그러나 전통적인 분석방법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질성을 간과하여 편향된 추정치를 산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Duncan, Duncan, & Strycker 2011).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위집단, 즉 잠재프로파일(latent profile)을 탐색하고 사람 중심적(person-oriented) 접근을 기반으로 하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하위집단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예측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결과로서 하위집단마다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행복감, 공동체의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다면 고등학생의 행복증진과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맞춤형 청소년활동 지원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앞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문제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은 몇 개로 구분되며 각 집단의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가정특성, 지역특성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의 잠재프로파일별 주관적 행복감 및 공동체 의식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의지에 의해서 발현되는 자율적 활동을 가리킨다(김진호 200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4)에서는 활동의 목표에 주목하여 청소년활동을 청소년 시기의 발달과업과 관련해서 성과를 거두고자 행하는 일련의 중요한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권일남 외(20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활동을 청소년 개인의 균형 있는 발달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인 활동으로 보았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의 범주와 개념의 실체를 단일하게 규정하기보다는 활동의 특성이나 가치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여러 활동으로 포괄적인 정의를 내렸다(김윤나·박옥식 2009). 이처럼 청소년활동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임희진 외 2014), 앞서 살펴본 청소년활동의 목표나 내용, 참여방식을 종합해볼 때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자신이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자율적 활동이며, 청소년 육성의 수단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크게 동아리 활동, 종교단체 활동, 자원봉사 활동, 시민 모임/단체 활동, 팬덤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교내·외 활동으로 구분하고자 한

다(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8). 이는 참여형태를 기준으로 교내 동아리활동으로 참여, 교내-교외 연계활동으로 참여,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 종교활동으로 참여 등 9개 항목을 개발하고, 청소년활동 참여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선행연구와 비슷한 방식이다(임희진·송병국 2014; 최창욱 외 2016). 국외연구로는 Menezes(2003)가 청소년활동을 교내참여, 교외참여, 봉사활동, 시민적 참여로 구분하였고, 상위 범주로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참여활동을 각각 포함하였다. 교내참여는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교외참여는 스포츠, 음악, 컴퓨터 등과 관련된 교외활동, 봉사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그리고 시민적 참여는 종교/청소년단체, 환경/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Menezes(2003)의 논의와 유사하게 청소년활동을 사회집단 혹은 단체에 참여하거나 생활환경과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동아리 활동, 종교단체 활동, 자원봉사 활동, 시민 모임/단체 활동, 팬덤 활동으로 유형화하였다(김경미 2020).

이러한 활동은 공동체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학습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것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임희진 외 2018). 또한 모두 비교과 활동으로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된 자발적 활동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이용교·이중섭 2010). 자원봉사 활동 또한 학교에서 행하는 의무적 봉사활동을 제외한 개념이다. 허철수·강옥련(2010)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율적인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 주위 친구들이나 사회구성원이 겪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된다. 청소년활동 중 팬덤(fandom) 활동은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개념으로, 청소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간에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향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정득 외 2017). 최근에는 팬덤 활동을 일부 광적인 청소년에게 일어나는 사회병리적 현상이나 일탈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추세이다(임영식 2002; Brenner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덤 활동 또한 청소년활동에 포함하여 폭넓은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청소년활동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청소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크게 개인특성, 가정특성, 그리고 지역

특성 요인이 있다. 우선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개인의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학교 생활 성실도, 친구관계가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성별은 청소년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문성호 외 2018; 박정희·김민 2007; 이현주·채유정 2014; 전명순·김태균 2014). 이현주·채유정(2014)에 따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체험 활동 유형 수와 참여 시간이 많았다. 특히 여학생들은 봉사, 문화예술, 자기계발, 직업체험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반면에 남학생들은 과학정보, 건강보건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성호 외(2018)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청소년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년은 청소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과 청소년활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청소년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 바 있다. 진영선·조아미(2016)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기간 동안 동아리 활동 참여수준은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중학교 시절 동아리 활동 참여수준은 30%대였으나 고등학교 진학 이후 70%대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등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이 특히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결과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고등학교 학년에 따른 핵심역량 및 주관적 행복감 등 기타 청소년활동 효과의 차이가 존재하였기에(김한솔·장여옥 2019; 안병환·김창현 2006) 본 연구에서는 학년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교생활 성실도와 관련해서는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임하는 학생들이 청소년활동에도 끈기 있고 진지하게 참여할 것으로 추측된 바 있다(전명순·김태균 2014). 5요인 성격 특성 중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학업생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밝혀졌고(O'Connor & Paunonen 2007), 성실한 개인들은 높은 성취동기, 바람직한 학습습관이나 행동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Bockaerts 1996).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에게 있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청소년기는 자기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부모를 넘어 주변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곽수란 2007; 박성준·김주일 2015). 이 시기에 원만한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외로움을 비롯하여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하게 된다(Parker & Asher 1987).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별과 더불어 학교에서의 학교생활 성실도와 교우관계가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분석하고자 한다.

가정특성 요인으로는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직업 유무가 청소년활동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관련된 시설 이용률도 높았다(임희진 외 2014). 2018년에도 가정의 경제형편에 따른 참여율 격차가 존재하여 경제수준이 ‘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율이 97.9%로 가장 높았고, ‘중’에 속하는 학생은 96.8%, ‘하’는 95.3%였다(임희진 외 2018). 부모의 직업 유무와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 더욱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더 활발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희진 외 2014). 따라서 가정특성 요인도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특성 요인으로 지역규모는 청소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인 체험에 있어 지역별로 환경 여건이 매우 상이하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도 다르므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추진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장현진 외 2014).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규모에 따라 체험 인프라 확충 모형을 자립형(대도시, 자족 가능한 시 지역), 연계형(대도시 편입 및 인접한 시·군 지역), 지원형(농·산·어촌 소규모 시·군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인프라 확충이 더욱 요구되었다. 조민행·전용배(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적 차원 이외에도 지역마다 청소년 시설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등 구조적 차원의 특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특성 요인은 인프라 측면에서 청소년활동 참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가정특성, 지역특성을 변인군으로 설정하고,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유형과 관련된 독립변수로 성별, 학년, 학교생활 성실도, 친구 관계, 아버지 직업 유무, 어머니 직업 유무, 가정경제 형편, 그리고 지역 규모를 상정하였다.

3.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및 공동체의식

주관적 행복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의 안녕감을 뜻한다(Compton 2005). 인지적 이론에서는 행복을 개인이 삶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상태로 정의한다(김희정 2009). 기존의 연구

에 따르면, 행복은 사람에게 많은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행복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건과 주변 환경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자기조절능력과 대처능력이 뛰어나며(Fredrickson et al. 2003), 우울이나 자살 등의 병리적인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낮다(Lyubomirsky 2001).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고등학생 때에는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등 자아와 관련된 기초 역량이 발달하여 이후 성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권일남 외 2014) 학교와 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의 행복감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 및 경험이 주관적 행복감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이시연 2019). 몇몇 실증연구에서 학교와 사회활동에의 참여수준이 청소년들의 행복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이홍직 2016; 진은설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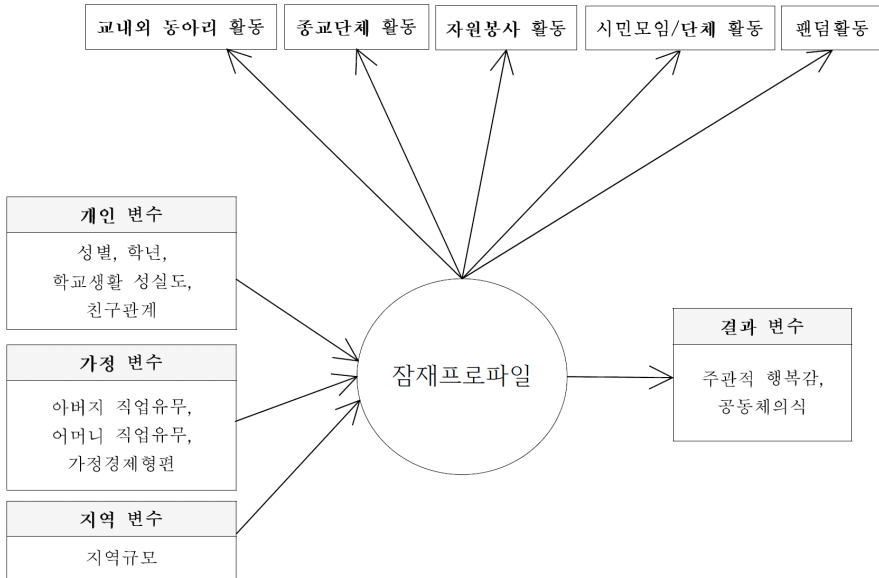
공동체의식이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정서적 유대감과 연대감, 소속감을 느끼고 상호 호혜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Reich 2010). 상호의존의 덕목은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집단적 가치의 결핍 등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함께 극복해나가는 데 기여한다(박호성 2009). 이러한 이유로 공동체의식은 건강한 사회가 요구하는 자질인 시민역량의 필수적 요소로 꼽히고, 사회화 과정에서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더욱 강조되고 있다(Erikson 1968). 청소년기에 학생 자신이 속한 학교 및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가지고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접한다면,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Larson 2000).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공동체역량이 핵심역량 중 하나로 제시되었는데(교육부 2015) 여러 청소년활동과 공동체의식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교내·외 동아리 활동, 종교단체 활동, 자원봉사 활동, 시민

모임/단체 활동, 팬덤 활동을 관찰변수로 설정하여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으로 개인특성, 가정특성, 지역특성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더 나아가 도출된 잠재프로파일별로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방정환재단의 후원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연구 2019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행복지수 자료는 유니세프 행복지수를 모델로 삼아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측정함으로써 OECD 국가 간 횡단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복지수의 변화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횡단조사(cross-sectional survey)가 실시되었다(염유식·김경미 2018). 표본은 시도교육청의 2018년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학급을 표

집단위로 하여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하여 크기비례확률추출 방식으로 추출하였다. 자료수집 방식으로는 무작위로 추출된 각 학교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고등학생 중에서 결측치를 제외하지 않고, 총 2,79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N=2,798)

구분		빈도(명)	백분율(%)
거주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262	45.1
	강원도	114	4.1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374	13.4
	영남권(부산, 대구, 경남, 경북)	718	25.6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330	11.8
성별	여성	1,385	49.5
	남성	1,413	50.5
학년	1학년	829	29.6
	2학년	915	32.7
	3학년	1,054	37.6

3. 측정도구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의 효과와 잠재프로파일별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내용과 척도는 <표 2>에 제시되었다.

우선 잠재프로파일 분류에는 각각의 청소년활동 변수가 5점 척도로 조사되어 활용되었다. 5개의 청소년활동 변수는 고등학생이 지난 1년간 참여하였던 교내·외 동아리 활동, 종교단체 활동, 자원봉사 활동, 시민 모임/단체 활동, 팬덤 활동의 참여 정도로 구성되었다.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성별, 학년, 학교생활 성실도, 친구관계, 아버지 직업 유무, 어머니 직업 유무, 가정경제형편, 지역 규모가 활용되었다. 개인특성 변수인 성별은 1=남성, 0=여성으로 더미변수화하였

고, 학년은 1=1학년, 2=2학년, 3=3학년으로 측정되었다. 학교생활 성실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3개 문항들의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문항은 ‘나는 몸이 조금 아프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가 있을 때에도 매일 학교에 가려고 노력한다’, ‘나는 학교 숙제나 시험을 위해, 좋아하지 않는 과목까지 포함하여 최선을 다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숙제까지 포함하여, 나는 모든 숙제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들여 최선을 다한다’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1이었다. 친구관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8개 문항이었고, ‘친구들에게 내 문제를 얘기할 때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진다’,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외로움을 느낀다’ 등 1번부터 5번 문항들에 대해서는 역코딩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양호함을 의미하도록 처리하였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0으로 나타났다. 가정특성 변수로서 부모의 직업 유무는 주부 또는 무직인 경우를 0으로 코딩하여 1=직업 있음, 0=직업없음으로 처리하였다. 가정경제형편은 학생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금전적인 측면에서의 가정형편을 조사하는 단일문항으로, 설문지에서 ‘상의 상, 상의 하,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분포를 고려하여 ‘상의 상’과 ‘상의 하’를 ‘상’으로, ‘하의 상’과 ‘하의 하’를 ‘하’로 묶어서 총 네 개의 범주로 구성되도록 처리하였다(이상직 외 2016).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에 속하는 지역규모는 1=대도시, 2=중소도시, 3=도서벽지 및 읍·면지역으로 측정되었으나,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역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별 결과변수(distal outcome)로서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을 활용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은 5점 척도로 구성된 단일문항이었다. ‘5=모르겠다’에 응답한 학생은 전무하였기에 중립적 응답항목의 처리 없이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도록 코딩할 수 있었다. 공동체의식은 5점 척도로 구성된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로 구성되었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8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표 2> 분석에 사용된 변수

구분	변수명	변수 내용	
청소년 활동	교내·외 동아리 활동	지난 1년간 의무적인 CA활동을 제외한 교내·외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정도 (1=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2=참여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참여한 편이다, 5=자주 참여했다)	
	종교단체 활동	지난 1년간 종교단체 활동에 참여한 정도 (1=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2=참여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참여한 편이다, 5=자주 참여했다)	
	자원봉사 활동	지난 1년간 학교에서 행하는 의무 봉사활동을 제외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정도 (1=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2=참여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참여한 편이다, 5=자주 참여했다)	
	시민 모임/ 단체 활동	지난 1년간 환경, 인권단체 등 시민 모임/단체에 참여한 정도 (1=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2=참여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참여한 편이다, 5=자주 참여했다)	
	팬덤 활동	지난 1년간 연예인, 운동선수 등과 관련된 팬덤 활동에 참여한 정도 (1=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2=참여하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참여한 편이다, 5=자주 참여했다)	
결정 요인	성별	0=여성, 1=남성	
	학년	1=1학년, 2=2학년, 3=3학년	
	개인 변수	학교생활 성실도	학교생활 성실도에 관한 3개 문항의 평균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항상 그런 편이다)
	친구 관계	친한 친구들과의 관계에 관한 8개 문항의 평균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	
	가정 변수	아버지 직업 유무	0=없음, 1=있음
		어머니 직업 유무	0=없음, 1=있음
		가정경제 형편	학생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의 금전적인 생활 형편 수준 (1=하, 2=중의 하, 3=중의 상, 4=상)
지역 변수	지역규모	1=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2=중소도시, 3=대도시	
결과 변수	주관적 행복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평소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 (1=전혀 행복하지 않다, 2=별로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3=대체로 행복한 편이다, 4=매우 행복하다, 5=모르겠다)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에 관한 4개 문항의 평균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매우 그렇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에 있어서 Mplus 8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잠재계층분석의 한 종류로서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여러 하위집단으로 분류하는 통계기법이다. 종속변수가 이분형 문항으로 구성될 때 잠재계층분석을 사용하고, 연속형 문항일 때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사용한다(Schmiege et al. 2012). 따라서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연속형 변수의 다변량 분포를 기반으로 응답패턴의 유사성에 따라 개인들을 보이지 않는 하위계층으로 분류한다(Collins & Lanza 2010).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잠재집단의 수를 늘려가며 자료에 가장 부합하는 최종모형을 선택한다. 이는 분류의 질, 정보지수, 모형비교 검증을 기준으로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엔트로피(entropy)를 이용하였다. 엔트로피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Dias & Vermunt 2006).

$$E_k = 1 - \frac{\sum_i \sum_k -P_{ik} \ln P_{ik}}{N \ln(K)} \quad (1)$$

추정식에서 P_{ik} 는 집단 k 에 속할 개인 i 의 사후확률을 의미하며 N 은 표본크기, K 는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뜻한다. 엔트로피는 하나의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값으로 범위는 0에서 1 사이이며, 하나의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이 1에 가깝고 다른 잠재프로파일에 속할 확률이 0에 가까울수록 그 값이 증가한다(Clark & Muthén 2009). 즉, 1에 가까운 값은 높은 분류 정확성을 나타내고, 0에 가까운 값은 정확성의 부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는 0.8 이상일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Muthén 2004).

다음으로 정보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Sample-size Adjusted BIC)를 사용하여 어떠한 모형이 적합한지 비교할 수 있다. 정보지수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ln(L)$ 은 로그 우도값(log likelihood), p 는 추정모수의 수, n 은 표본크기를 의미한다. SABIC는 BIC식에서 n 대신 $n^* = (n+2)/24$ 를 대입하여 계산한다. 모형비교 시 작은 정보지수 값을 가진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Akaike 1974; Schwartz 1978; Sclove 1987).

$$AIC = -2\ln(L) + 2p \quad (2)$$

$$BIC = -2\ln(L) + p[\ln(n)] \quad (3)$$

마지막 기준으로는 조정된 x^2 차이검증(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LMR LRT)과 모수적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Parametric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BLRT)을 사용하였다(Lo et al. 2001; McLachlan & Peel 2000). 이러한 모형 간 차이검증은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k 개인 모형을 평가할 때 잠재프로파일이 $(k-1)$ 개인 모형과 비교하여 x^2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검증에서의 p 값이 유의하다면 k 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채택하고, 유의하지 않다면 $(k-1)$ 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한다.

잠재프로파일을 분류한 후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는 3단계 접근법(3-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홍세희 2020). 그동안 사용되어 온 1단계 접근법은 잠재 공변량의 수가 많을 경우 비현실적일 수 있고, 공변량 유무에 관계없이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정한다는 한계점이 있다(Vermunt 2010). 이를 보완하여 Asparouhov & Muthén(2014)의 연구에서 제안한 3단계 접근법은 잠재프로파일 변수와 영향요인 간의 관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3단계 중 1단계는 잠재프로파일 구분을 위한 지표변수(indicator)만 투입된 기본 모형을 평가하고, 2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도출된 사후확률분포를 활용하여 각 개인이 속할 잠재프로파일을 추정한다. 3단계에서는 분류 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의 효과를 검증한다. 연구문제 2에 해당하는 독립변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짓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고, 산출된 다항로짓계수를 통해 공변인과 잠재프로파일 간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잠재프로파일별 최종 결과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DU3STEP 보조변수(auxiliary)를 활용하였다. DU3STEP은 결과변수를 모형에 포함하였을 때 기존 잠재프로파일 분류가 변하지 않도록 고정하고, 잠재프로파일별 결과변수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는 분석방법이다(Asparouhov & Muthén 2014).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3>과 같다. 청소년활동 변수를 살펴보면, 교내·외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활동, 팬덤 활동, 종교단체 활동, 시민 모임/단체 활동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개인변수 중 성별의 평균은 0.51로 남녀가 거의 같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변수 중에서 아버지 직업 유무에 대한 평균은 0.96으로 다소 높았던 반면, 어머니 직업 유무의 평균은 0.65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무직이거나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과변수인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은 2.98였고, 공동체의식의 평균은 3.61로 나타났다.

<표 3> 분석변수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척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N
청소년 활동		교내외 동아리 활동(5점 척도)	3.49	1.37	1.00	5.00	2,796
		종교단체 활동(5점 척도)	1.89	1.33	1.00	5.00	2,797
		자원봉사 활동(5점 척도)	2.97	1.30	1.00	5.00	2,796
		시민 모임/단체 활동(5점 척도)	1.67	0.97	1.00	5.00	2,797
		팬덤 활동(5점 척도)	1.90	1.30	1.00	5.00	2,796
결정 요인	개인 변수	성별(1=남성)	0.51	0.50	0.00	1.00	2,798
		학년(3점 척도)	2.08	0.82	1.00	3.00	2,797
		학교생활 성실도(4점 척도)	3.05	0.65	1.00	4.00	2,774
		친구 관계(5점 척도)	3.93	0.61	1.50	5.00	2,637
	가정 변수	아버지 직업 유무(1=있음)	0.96	0.19	0.00	1.00	2,633
		어머니 직업 유무(1=있음)	0.65	0.48	0.00	1.00	2,633
		가정경제 형편(4점 척도)	2.64	0.80	1.00	4.00	2,670
지역 변수	지역 규모(3점 척도)	2.33	0.65	1.00	3.00	2,798	
결과 변수		주관적 행복감(5점 척도)	2.98	0.67	1.00	4.00	2,554
		공동체 의식(5점 척도)	3.61	0.85	1.00	5.00	2,796

<표 4> 분석변수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1												
2	.121**	1											
3	.383**	.116**	1										
4	.198**	.259**	.325**	1									
5	.112**	.123**	.153**	.286**	1								
6	-.084**	.026	-.100**	.012	-.220**	1							
7	.017	-.030	.023	-.005	.036	-.022	1						
8	.012	-.031	-.023	.004	-.036	.007	.118**	1					
9	.105**	-.010	.109**	.091**	.061**	.025	.064**	-.014	1				
10	.235**	.011	.260**	.070**	.053**	-.027	.011	-.025	.147**	1			
11	.142**	-.023	.124**	.050*	.024	-.005	.013	-.015	.153**	.183**	1		
12	.100**	.038	.099**	.046*	-.007	.107**	-.012	-.017	.220**	.177**	.331**	1	
13	.296**	.106**	.356**	.198**	.123**	-.119**	.017	.010	.100**	.364**	.275**	.247**	1

주: 1. 교내외 동아리 활동, 2. 종교 단체 활동, 3. 자원 봉사 활동, 4. 시민 모임/단체 활동, 5. 펜딩 활동, 6. 성별, 7. 아버지 직업유무, 8. 어머니 직업유무, 9. 가정경제형편, 10. 학교생활 성실도, 11. 친구관계, 12. 주관적 행복감, 13. 공동체의식

* p<0.05, ** p<0.01

분석변수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시각적 편의를 위하여 0.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은 굵게 표시하였다. 청소년활동 중 교내·외 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자원봉사 활동과 공동체의식은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학교생활 성실도와 공동체의식 또한 정적 관계에 있었다. 성별(1=남성)과 팬텀 활동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2.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1) 잠재프로파일의 수 결정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수를 정하기 위해 프로파일의 수를 늘려가며 정보지수와 모형비교 검증, 엔트로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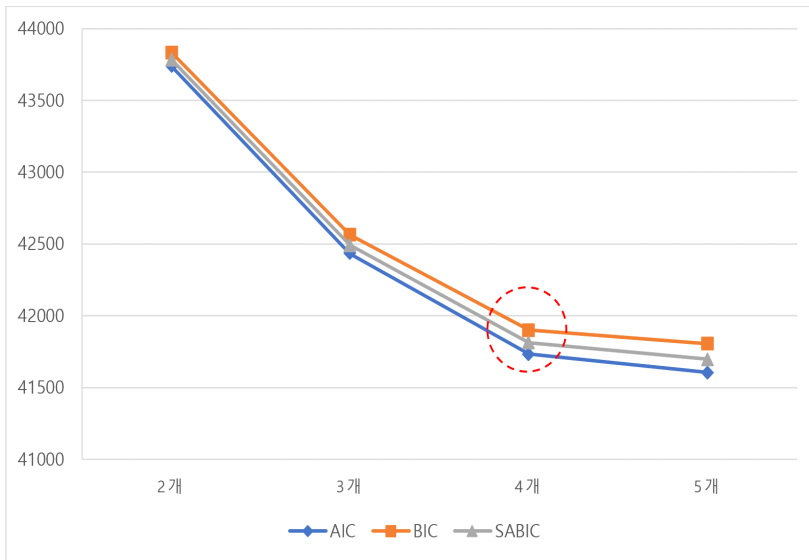
<표 5> 잠재프로파일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류 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43720.015	42413.704	41715.548	41585.560
	BIC	43814.990	42544.295	41881.754	41787.382
	SABIC	43764.152	42474.393	41792.789	41679.352
모형비교 검증	LMR LRT	0.0000	0.0000	0.0000	0.0017
	BLRT	0.0000	0.0000	0.0000	0.0000
분류의 질	Entropy	0.9640	0.9650	0.8870	0.9410
분류율	집단 1	.73	.62	.41	.58
	집단 2	.27	.22	.15	.11
	집단 3		.15	.22	.20
	집단 4			.22	.07
	집단 5				.04

주: LMR LRT와 BLRT는 *p*값을 제시하였음.

첫째, 정보지수에 있어서는 작은 AIC, BIC, SABIC 값을 가진 모형이 선호되는데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늘어날수록 AIC, BIC, SABIC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인분석 수행 시 스크리 도표(scree plot)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요인의 수를 정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노언경 · 홍세희 2012;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정보지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2>을 보면,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늘어날수록 세 가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잠재프로파일이 4개에서 5개로 증가하는 구간에서 그 감소폭이 눈에 띄게 둔화되어 팔꿈치형(elbow) 그래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Nylund et al. 2007)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이 가장 적절하다.



<그림 2> 잠재프로파일 수 증가에 따른 정보지수의 변화

둘째, 모형비교 검증인 LMR LRT와 BLRT에서 p 값이 유의하면 $(k-1)$ 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기각하고, k 개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지지할 수 있다. LMR LRT와 BLRT는 모두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2개부터 5개일 때까지 p 값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든 모형에서 p 값이 지속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어떤 하나의 모형을 채택하기 어려웠으므로 모형비교 검증은 최종모형 선택에 있어 유용하지 않았다.

셋째, 분류의 질을 나타내는 엔트로피(entropy) 값은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분류를 의미하는데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2개일 때부터 엔트로피 값이 계속 0.8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엔트로피는 일반적으로 0.8 이상이면 분류의 정확도가 높다고 보며, 모형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Collins & Lanza 2010). <표 5>

에서는 엔트로피가 모든 잠재프로파일 모형에서 나쁘지 않은 값을 보였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정보지수 등 다른 기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정보지수, 모형비교 검증, 분류의 질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잠재프로파일을 4개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였다. 모형비교 검증인 LMR LRT와 BLRT, 그리고 엔트로피를 토대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웠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인 정보지수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이 4개일 때 세 가지 지수가 변화하는 기울기 폭이 완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Nylund et al.(2007)의 시물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엔트로피보다 정보지수인 AIC와 BIC를 비교하면서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AIC와 BIC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AIC보다 BIC를 기준으로 최종모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AIC와 BIC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여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최적의 잠재프로파일 수를 결정할 때 적합도 지수만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층별 사례 수의 비율과 해석가능성 또한 고려하였다. <표 5>에서 잠재프로파일이 5개인 경우 가장 적은 수의 잠재프로파일의 비율이 5% 미만인 4%로 낮게 나타났다(Jung & Wickrama 2008). 해석적인 측면에서도 5개 프로파일보다는 4개 프로파일이 모두 잘 구분되었기 때문에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후계층 소속확률을 통해 분류의 질을 점검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후계층 소속확률이 0.7 이상일 때 비교적 정확한 분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Nagin 2005). <표 6>에 제시된 행렬의 대각선을 살펴보면, 집단 1은 94.0%, 집단 2는 100%, 집단 3은 89.8%, 집단 4은 93.3%로 나타났다. 계층분류 확률이 모두 0.9나 1에 가까운 값을 보이므로 계층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6> 평균 사후확률표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집단 1에 속할 확률	0.940	0.000	0.060	0.000
집단 2에 속할 확률	0.000	1.000	0.000	0.000
집단 3에 속할 확률	0.098	0.000	0.898	0.004
집단 4에 속할 확률	0.046	0.000	0.021	0.933

2) 잠재프로파일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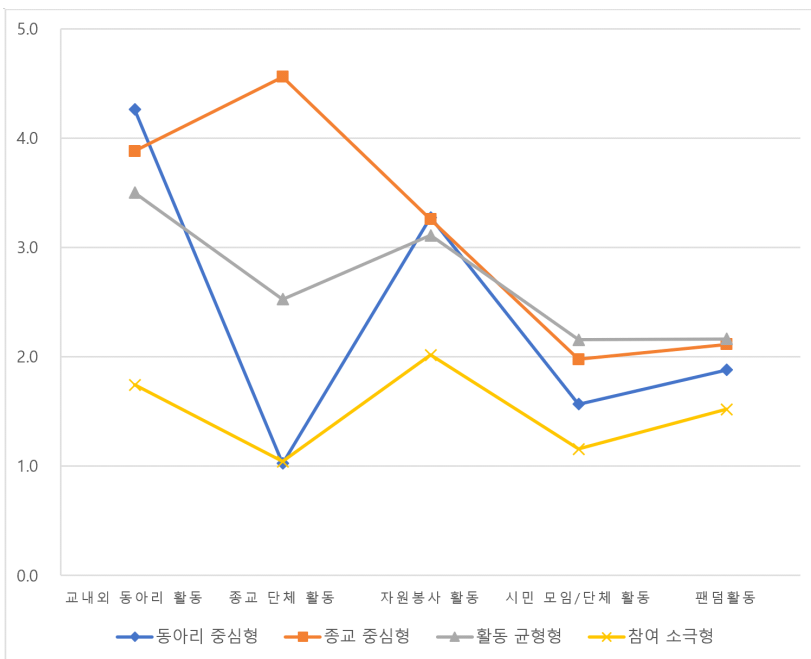
각 잠재프로파일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표 7>은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별 지표의 계수(평균)와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모든 계수는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7> 잠재프로파일별 변수들의 계수와 표준오차

변수	동아리 중심형		종교 중심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교내·외 동아리 활동	4.263	0.032	3.884	0.061	3.503	0.048	1.743	0.051
종교단체 활동	1.026	0.006	4.561	0.024	2.527	0.027	1.043	0.011
자원봉사 활동	3.277	0.046	3.260	0.060	3.111	0.043	2.019	0.064
시민 모임/단체 활동	1.567	0.030	1.977	0.057	2.156	0.040	1.158	0.020
팬덤 활동	1.882	0.042	2.116	0.068	2.164	0.052	1.513	0.051
비율	41.3%		15.4%		21.7%		21.6%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는 <그림 3>과 같다. 계수 값을 고려하여 4개의 잠재프로파일을 동아리 중심형, 종교 중심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으로 명명하였다. 첫 번째 잠재프로파일의 경우, 학생들이 주로 교내·외 동아리 활동에 전념하고 나머지 활동 중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다. 고등학생 중 41.3%가 동아리 중심형에 속하여 네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다른 프로파일과 비교하였을 때 종교단체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종교 중심형’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집단은 종교단체 활동 다음으로는 교내·외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을 비교적 활발히 하고 있었다. 또한, 종교 중심형은 동아리 중심형과 비교하였을 때 시민 모임/단체 활동과 팬덤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더욱 높았다. 전체의 15.4%가 종교 중심형에 속하였다. 세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기본적인 수준으로 하고, 다른 집단에 비해 시민 모임/단체 활동과 팬덤 활동 참여가 약간 높았다. 따라서 기존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동아리, 봉사 활동과 더불어 다른 활동

도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활동 균형형’으로 명명하였다. 활동 균형형에는 21.7%의 학생이 속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잠재프로파일은 활동 균형형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모든 영역에서 더 낮은 수준의 참여도를 나타내고 교내·외 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만 약간 하였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가 저조하여 앞으로 학교나 사회의 청소년활동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 잠재프로파일을 ‘참여 소극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참여 소극형은 전체의 21.6%를 차지하였다.



<그림 3>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형태

3) 청소년활동 참여유형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잠재프로파일과 예측변수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4개의 잠재프로파일이 도출된 모형에 독립변수를 포함하였다. 각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대한 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영향요인 검증

변수 영역	변수	준거집단: 동아리 중심형			준거집단: 종교 중심형		준거집단: 활동 균형형
		종교 중심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	참여 소극형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개인 변수	성별	0.292* (0.129)	0.452*** (0.124)	0.641*** (0.146)	0.160 (0.146)	0.349* (0.157)	0.189 (0.153)
	학년	-0.154 (0.082)	-0.161* (0.075)	-0.178* (0.089)	-0.007 (0.092)	-0.024 (0.099)	-0.017 (0.093)
	학교생활 성실도	-0.176 (0.105)	-0.306** (0.101)	-0.748*** (0.120)	-0.130 (0.116)	-0.572** (0.125)	-0.442*** (0.121)
	친구 관계	-0.247* (0.108)	-0.292** (0.106)	-0.426*** (0.121)	-0.045 (0.121)	-0.179 (0.128)	-0.134 (0.125)
가정 변수	아버지 직업 유무	-0.412 (0.300)	0.853 (0.481)	0.000 (0.389)	1.265* (0.493)	0.412 (0.380)	-0.853 (0.527)
	어머니 직업 유무	-0.208 (0.133)	-0.026 (0.131)	-0.039 (0.151)	0.182 (0.151)	0.169 (0.160)	-0.013 (0.158)
	가정경제 형편	-0.228** (0.084)	0.067 (0.085)	-0.203* (0.093)	0.296** (0.098)	0.025 (0.098)	-0.271** (0.099)
지역 변수	지역 규모	0.113 (0.098)	0.261** (0.096)	0.103 (0.108)	0.149 (0.113)	0.025 (0.098)	-0.158 (0.115)

* $p < 0.05$, ** $p < 0.01$, *** $p < 0.001$.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개인특성 변수인 성별이 동아리 중심형과 기타 집단 간 비교와 종교 중심형과 참여 소극형 간 비교에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중심형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경우, 성별이 남성일 때 동아리 중심형보다 종교 중심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에, 종교 중심형보다는 참여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동아리 중심형이 될 가능성이 낮았고, 청소년활동에 대해 낮은 참여를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학년의 경우 저학년일수록 동아리 중심형에 비해 활동 균형형이나 참여 소극형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았다. 즉, 고학년인 학생들이 두 집단보다는 동아리 중심형에 속할 확률이 높다. 학교생활 성실도는 동아리 중심형과 활동 균형형 간 비교, 동아리 중심형과 참여 소극형 간 비교, 종교 중심형과 참여 소극형 간 비교, 그리고 활동 균형형과 참여 소극형 간 비교에서 유의하였다. 즉, 학교생활을 불성실하

게 할수록 동아리 중심형보다는 활동 균형형이나 참여 소극형에, 종교 중심형이나 활동 균형형보다는 참여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친구관계는 동아리 중심형과 기타 집단 간 비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친구관계가 양호하지 않은 학생은 동아리 중심형보다는 종교 중심형, 활동 균형형, 또는 참여 소극형에 속할 승산이 높았다.

가정특성 변수 중에서는 아버지 직업 유무와 가정경제형편이 집단 간 비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버지 직업 유무는 종교 중심형과 활동 균형형 간 비교에서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의 직업이 있을 때 종교 중심형보다는 활동 균형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정경제형편은 동아리 중심형과 종교 중심형 간 비교, 동아리 중심형과 참여 소극형 간 비교, 종교 중심형과 활동 균형형 간 비교, 그리고 활동 균형형과 참여 소극형 간 비교에서 유의하였다. 즉, 가정의 경제형편 수준이 낮을수록 동아리 중심형보다 종교 중심형 또는 참여 소극형에, 그리고 활동 균형형보다는 종교 중심형이나 참여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지역특성 변수인 지역규모는 동아리 중심형과 활동 균형형 간 비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가 클수록 동아리 중심형보다 활동 균형형에 속할 승산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각 잠재프로파일의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는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라 도출된 잠재프로파일들의 최종 결과변수(distal outcome)를 분석한 결과이다. 각 집단별 결과변수의 차이검증을 위해 ANOVA를 통해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산출된 p 값은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은 종교 중심형, 동아리 중심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의식 또한 종교 중심형, 동아리 중심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 순으로 높았다.

<표 9>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

집단 구분	주관적 행복감		공동체의식	
	평균	표준오차	평균	표준오차
동아리 중심형	3.032	0.024	3.760	0.027
종교 중심형	3.038	0.032	3.806	0.036
활동 균형형	2.995	0.029	3.656	0.032
참여 소극형	2.849	0.037	3.146	0.042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정환재단의 후원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고등학생들의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 하위집단을 분류하였다. 또한, 각 하위집단에서의 소속을 결정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한 후, 각 집단별 주관적 행복감 및 공동체의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 기준과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4개로 분류하였다. 주목할 점은 전반적으로 교내 외 동아리 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다른 활동에 비해 높았다는 것인데, 이는 남녀 통틀어 청소년 모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체험활동은 봉사 활동이라는 이현주·채유정(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 학교 안팎의 예산 및 지원 확대로 학생 개개인의 흥미, 특기, 적성에 적합한 집단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민 모임/단체 활동의 경우 집단과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낮은 참여를 보고하였다. 이는 서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등학생을 시민 모임/단체 활동과 같은 사회참여를 하기에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최창욱 외 2018). 따라서 고등학생을 성숙한 존재로 수용하며 시사에 대한 이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사회참여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등학생 집단 간에 가장 큰 참여율 격차를 보인 활동 영역은 종교단체 활동인 반면에 가장 낮은 참여율 격차를 보인 영역은 팬덤 활동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 패턴에 따라 네 집단을 동아리 중심형(41.3%), 종교 중심형(15.4%), 활동 균형형(21.7%), 참여 소극형(21.6%)으로 명명하였다. 청소년활동 참여유형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동아리 중심형 집단은 교내이들의 외 동아리 활동에 몰두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다. 이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종교단체 활동과 시민 모임/단체 활동, 그리고 팬덤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종교 중

심형 집단은 여러 청소년활동 중에서 종교단체 활동에 가장 전념하고 있었다. 활동 균형형 집단의 경우, 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보통 수준으로 하고, 다른 집단에 비해 시민 모임/단체 활동과 팬덤 활동에 약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 소극형 집단은 모든 활동 영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참여도를 보였다. 앞으로 고등학생 중 약 22%를 차지하는 참여 소극형 집단의 학생들이 청소년활동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식과 소질, 잠재력을 두루 기르고, 학교생활을 더욱 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이 학생들에게 특화된 청소년활동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참여 소극형 집단에 속하게 되는 데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들에 관한 개입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잠재프로파일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성별, 학년, 학교생활 성실도, 친구관계, 아버지 직업 유무, 가정경제형편, 지역규모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변수 중에서 성별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동아리 중심형보다 종교 중심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에, 종교 중심형보다는 참여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청소년활동에 더욱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문성호 외 2018; 박정희·김민 2007; 이현주·채유정 2014; 전명순·김태균 2014).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고, 끈기 있고 진지하게 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전명순·김태균 2014).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컴퓨터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등 미디어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하여진 2017). 따라서 시각적, 오락적 매체 이용보다는 동아리 활동과 같이 학교 및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청소년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도록 남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이 선호하는 청소년활동과 수요를 분석하여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년은 올라갈수록 활동 균형형이나 참여 소극형보다는 동아리 중심형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아리를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41.3%의 학생들이 고학년이면서 수시전형 등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입시와 연관된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학교현장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의 비교과 청소년활동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입시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김한솔·장여옥 2019). 따라서 단순히 입시만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참여가 비교적 저조한 고등학교 저

학년을 대상으로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청소년활동 연구에서는 고등학교의 특정 학년에 한정되어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을 파악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했지만(문성호·박승곤·윤동엽·정지운 2015),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모두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학년과 청소년활동 참여양상 간의 관계를 새로이 밝혔다.

또한,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할수록 동아리 중심형보다는 활동 균형형이나 참여 소극형에, 종교 중심형이나 활동 균형형보다는 참여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 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그리고 종교 활동 등 청소년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개인의 성격 특성에 해당하는 성실성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업(O'Connor & Paunonen 2007)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교우관계와 관련해서는 친구관계가 양호하지 않을수록 동아리 중심형보다는 종교 중심형, 활동 균형형, 또는 참여 소극형에 속할 승산이 높았다. 이는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얻는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타인과 더불어 사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연구결과(Parker & Asher 1987)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친구관계가 원만할수록 또래 간 협력을 요구하는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평소 교우관계에 대한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청소년지도사의 개입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서로 어울릴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동아리나 봉사 활동 시 따돌림, 폭력, 활동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교사들이 상담 및 갈등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변수 중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있을 때 종교 중심형보다는 활동 균형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어머니 직업 유무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 유무가 청소년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임희진 외(2014)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직업 유무가 잠재프로파일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로부터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만, 부모의 직업 유무와 청소년활동 참여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의 경제형편 수준은 낮을수록 동아리 중심형과 활동 균형형보다 종교 중심형이나 참여 소극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가정의 경제형편 수준이 높을수록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 더욱 다양하고 비종교적인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가정경제형편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참여율 격차가 뚜렷하다는 선행연구의 결론과 유사하다(임희진 외 2014; 임희진 외 2018). 따라서 청소년활동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 차원에서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령, 가정형편으로 인해 청소년활동 참여가 어려운 고등학생들로부터 원하는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지원금과 청소년지도사의 도움을 제공하는 방안을 실시함으로써 금전적 여력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역특성인 지역규모는 클수록 동아리 중심형보다 활동 균형형에 속할 승산이 높았다. 즉,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가 작은 경우 고등학생들이 다른 청소년활동보다도 동아리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중소도시에서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학교 안과 밖의 청소년활동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장현진 외 2014)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대도시 거주 학생들에 비해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지역규모와 청소년활동 참여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서울, 인천 등의 대도시에서는 과대 규모의 학교와 청소년 인구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청소년활동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민부자·홍후조 2011). 따라서 도시 내에 존재하는 대학, 기관, 또는 기업과 연계하여 기존 인적 네트워크,와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비중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공공인프라는 평균 62.1개, 청소년 시설 4.2개, 문화시설 12.2개 등 다양하므로 기존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만으로도 상당한 청소년활동 인프라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장현진 외 2014).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 참여양상의 잠재프로파일별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을 살펴본 결과, 종교 중심형, 동아리 중심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 순으로 높은 수준의 주관적 행복감을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참여 소극형 집단보다는 청소년활동을 보통 수준으로 하는 활동 균형형 집단이 더 행복하고, 활동 균형형 집단보다는 동아리 활동 또는 종교단체 활동 중 한 가지에 몰두하는 동아리 중심형과 종교 중심형 집단들이 더 행복하다는 느낌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기의 활동 및 경험이 주관적 행복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이시연 2019; 이홍직 2016; 진은설 2013). 공동체의식 또한 종교 중심형, 동아리 중심형, 활동 균형형, 참여 소극형 순으로 높았다. 이는 초기 청소년의

종교 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강가영·장유미 2013; 정득·배준석·이종석, 2015). 종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공동체의식이 가장 높다는 결과는 종교 활동이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아와 환경을 스스로 성찰하게 돕고, 이들의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정득 외 2015). 유용식(2014)의 연구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상담기관 등과 함께 지역네트워크 중 하나로서 기능하고, 청소년활동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자살이나 비행 등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 지지체계로 거듭날 수 있다. 따라서 종교활동이 고등학생 개인에게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게 하고 공동체에 적응하도록 하는 심리적 기능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또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식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종교 중심형과 동아리 중심형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각각 종교단체 활동이나 교내·외 동아리 활동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 또한 활발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활동 중에서도 동아리 활동과 종교 활동, 봉사 활동은 고등학생으로 하여금 입시 준비와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 행복을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고, 이를 골고루 할수록 봉사의 대상이나 또래, 교사 등과 맺는 관계를 이해하게 되어 연대의식을 느끼고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김성훈 2015; 문영희 2003).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이 양적, 질적으로 가장 부족한 집단인 고등학생에 주목하여 청소년활동 참여양상과 이에 대한 영향요인 및 정서적·사회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 시기에 경험한 청소년활동이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 기반하여 여러 활동의 참여에 따른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고등학생 대상 청소년활동 연구에서 쓰이지 않았던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활동 참여의 개인차를 분석에 반영하였고, 연구대상인 청소년들을 단일집단이 아닌 세부적인 하위집단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의 크기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쉬운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자료에 있는 문항만 사용할 수 있어 전반적인 청소년활동 형태 및 영역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과학정보, 직업체험, 건강보건 등 세부적인 청소년활동의 주제와 관심 분야가 포함

된 문항들을 추가한다면 보다 다양한 활동의 참여양상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청소년활동의 참여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잠재프로파일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활동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활동 만족도와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진은설 2013).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분석방법을 통해 청소년활동 참여동기 및 만족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2019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 종단연구를 시행한다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청소년활동 참여의 변화양상과 관련 요인들을 풍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가영·장유미. 2013.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97-123.
- 고관우·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곽수란. 2007. “초·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 1-21.
- 교육부.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확정·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5.9.23).
- 구지윤·김유나. 2016. “청소년 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8): 287-309.
- 권일남·정철상·김진호·김영철. 2008. 《청소년활동지도론》. 학지사.
- 권일남·김태균·최진이·이상경. 2014. 《청소년활동론: 역량개발중심》. 학지사.
- 김경미. 2020. “참여하는 청소년은 행복한가? : 사회참여 활동유형과 성별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46(1): 141-164.
- 김선숙·안재진. 201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39-363.
- 김성훈. 2015. “청소년의 봉사 활동과 공동체 의식: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6(2): 237-259.
- 김윤나·박옥식. 2009. “청소년활동의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1(1): 79-99.
- 김진호. 2008.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참여자의 몰입경험 결정요인 구조분석.” 《미래청소

년학회지》 5(4): 1-25.

- 김한솔·장여옥. 2019. “자율동아리활동 참여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차이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1-22.
- 김현철·최창욱·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활동 정책의 연계방안 연구(연구보고 10-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진. 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 유형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8: 195-214.
- 김희정. 2009.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몰입, 삶의 의미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언경·홍세희. 2012.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 목적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3(3): 51-76.
- 문성호·박승곤·윤동엽·정지윤. 2015. “한국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의 특성.” 《청소년학연구》 22(4): 133-157.
- 문성호·박승곤·정지윤·박지원·노지혜. 2018. “2018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연구보고).”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문영희. 200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복지교육의 이론적 함의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8(1): 123-144.
- 민부자·홍후조. 2011.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학급·학교 규모에 관한 시론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2): 1-24.
- 박성준·김주일. 2015.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청소년복지연구》 17(3): 263-288.
- 박정희·김민. 2007.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4(1): 85-103.
- 박재숙. 2011. “초기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공동체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4): 47-69.
- 박진영. 2007. “고등학생의 여가참여가 사회성 발달 및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22(1): 421-440.
- 박호성. 2009. 《공동체론》. 경기: 효형출판.
- 신인순·전동일. 2017. “청소년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간의 인과관계.” 《사회과학연구》 33(4): 121-140.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8. “2018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 염유식·김경미. 2018.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 안병환·김창현. 2006. “청소년수련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논단》 5(2):

41-60.

- 이시연. 2019. “고등학생 시기 청소년활동이 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117-134.
- 이용교·이중섭. 2010.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참여 의식, 사회적 신뢰, 친사회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2): 203-232.
- 이현주·채유정. 2014.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장.” 《한국청소년연구》 25(2): 173-207.
- 이홍직. 2016. “중고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자본 요인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39: 151-186.
- 임영식. 2002. “대중 스타에 대한 청소년의 이상화 현상과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9(3): 57-78.
- 임희진·송병국·안지선.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연구보고 14-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송병국.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연구보고 14-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2018.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V(연구보고 18-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현진·정윤경·김나라·임건주. 2014.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 전명순·김태균. 2014.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 학습습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38: 71-90.
- 정득·배준석·이중석. 2015. “청소년의 종교 활동과 공동체의식: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 《종교연구》 75(4): 229-232.
- 정득·김은수·이중석. 2017.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자아존중감: 학습적응도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5(2): 343-367.
- 조민행·전용배. 2008. “공공여가자원의 접근성 및 이용성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2(2): 1171-1184.
- 진영선·조아미. 2016.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동아리활동 참여수준 변화 및 유형과 특성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3(2): 25-40.
- 진은설. 2013.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 활동만족도, 적응유연성 및 행복감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4(1): 185-217.
- 최창욱·문호영·김진호. 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연구보고 15-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문호영·김정주. 2016.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연구보고 16-R09).” 세

- 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2018.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8-R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하여진. 2017. “고등학생의 여가 활용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예측요인과 진로정체감의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28(1): 5-36.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연구》. 서울: 계문사.
- 한은영·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43: 95-124.
- 허철수·강옥련. 2010. “동아리활동 참여 청소년과 미참여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2(3): 25-46.
- 홍세희. 2020. 《잠재계층, 잠재전이, 성장혼합모형》. 서울: 박영사.
- Akaike, H. 1974. “A New Look at the Statistical Model Identification.” *IEEE Transactions on Automatic Control* 19: 716-723.
- Asparouhov, T. and B. Muthén.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oekaerts, M. 1996. “Self-regulated Learning at the Junction of Cognition and Motivation.” *European Psychologist* 1(2): 100-112.
- Brenner, R. 2013. “Teen Literature and Fan Culture.” *Young Adult Library Services* 11(4): 33.
- Collins, L.M. and S.T. Lanza. 2010. *Latent Class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 With Applications in the Social, Behavioral, and Health Sciences*. New York: Wiley.
- Compton, W.C. 2005.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Belmont: Thomson/Wadsworth.
- Clark, S.L. and B. Muthén. 2009. *Relating Latent Class Analysis Results to Variables not Included in the Analysis*.
- Dias, J.G. and J.K. Vermunt. 2006. “Bootstrap Methods for Measuring Classification Uncertainty in Latent Class Analysis.” *Proceedings in Computational Statistics* 31-41.
- Duncan, T.E., S.C. Duncan, and L.A. Strycker. 2011.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 York: Psychology Press.
- Erikson, E.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redrickson, B.L., M. Tugade, C.E. Wauugh, and G.R. Larkin. 2003. "What Good Are Emotions in Crisis? A Prospective Study of Resilience and Emotions Following the Terrorist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n September 11th 2001."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56-376.
- Jung, T. and K.A.S. Wickrama.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ling."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2: 302-317.
- Kang, L.J., R.J. Palisano, M.N. Orlin, L.A. Chiarello, G.A. King, and M. Polansky. 2010. "Determinants of Social Participation-with Friends, and Others Who Are not Family Members-for Youths with Cerebral Palsy." *Physical Therapy* 90(12): 1743-1757.
- Larson, R.W. 2000. "Toward a Psychology of Positive Youth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5(1): 170-183.
- Lo, Y., N.R. Mendell, and D.B. Rubin.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 767-778.
- Lyubomirsky, S. 2001.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be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56(3): 239-249.
- McLachlan, G.J., and D. Peel. 2000. *Finite Mixture Models*. New York: Wiley.
- Menezes, I. 2003. "Participation Experiences and Civic Concepts, Attitudes and Engagement: Implication for Citizenship Education Projects." *Europ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3): 430-445.
- Muthén, B.O. 2004.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 Thousand Oaks, CA: Sage.
- Nagin, D.S. 2005. *Group-based Modeling of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ylund, K.L., T. Asparouhov, and B.O. Muthén.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O'Connor, M.C. and S.V. Paunonen. 2007. "Big Five Personality Predictors of Post-secondary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5): 971-990.
- Parker, J.G. and S.R. Ashe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Reich, S.M. 2010.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on Myspace and Facebook: A Mixed-method Approac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6): 688-705.
- Schmiege, S.J., P. Meek, A.D. Bryan, and H. Petersen. 2012.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A Flexible Statistical Approach for Identifying and Classifying Heterogeneity.” *Nursing Research* 61(3): 204-212.
- Schwartz, G. 1978. “Estimating Dimensions of a Model.” *Annals of Statistics* 6: 461-464.
- Sclove,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 333-343.
- Vaillant, G.E. 2012. *Triumphs of Experien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ermunt, J.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 450-469.
- Wang, J. and W. Wang.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lications Using Mplus*. United Kingdom: John Wiley & Sons.

<접수 2020.11.13; 수정 2020.12.16; 게재확정 2020.12.24>

Classifying Latent Profiles in Youth Activities and Examining Differences in Sense of Community and Happi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Youngseo Kim
(Korea University)

Sehee Hong
(Korea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latent profiles depending on the patterns of youth activity participation of adolescents and tested the effects of factors determining the classification of latent profiles. The differences in the sense of community and happiness were also analyzed. Latent profil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2018 Index of Happines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 sample of 2,798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re were four latent profiles amongst adolescents, distinguished by their youth activity patterns; a club-centered group, a religion-centered group, an average group, and a paucity group.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d these profiles were gender, grade, conscientiousness in school, peer relationship, father's employment status, family economic situation, and size of the region. Mother's employment status have been shown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Lastly, high levels of subjective happiness and sense of community were reported in order of the religion-centered group, club-centered group, average group, and paucity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practical implications that can promote the happiness of adolescents in Korea.

Key words: youth activity, latent profile analysis, sense of community, happiness

^{*} This paper was modified based on the first author's award-winning work in the sixth Child and Adolescent Happiness Index Thesis Competition of the Korea Bhang Jeong Hwan Foundation and the Korean Association For Survey Research.